

열대풍토병에 관하여

제 4 회

(열대지방 여행시 조심해야할 질병)

말라리아

- 전 열대지역 및 아열대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모기에 물리면 걸리는 질병이다.
- 온대지방에서는 환자수는 줄어 들었지만 범세계적으로 볼때 열대지방에서는 아직도 연간 수백만 이상의 사람이 이환되고 있다.
- 말라리아는 4종류가 있다. 삼일열, 난형열은 매 48시간, 사일열은 매 72시간, 열대열은 매 36-48시간의 고열 발작을 되풀이 한다. 이들의 발열간격은 사람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도 있다.
- 발열은 오한과 더불어 40°C 이상의 고열로 수시간 지속하여 다량의 땀이 나온 다음 정상으로 돌아온다.
- 열대열은 때로 뇌증이나 황달증세의 무서운 증상을 일으켜서 사망하는 일도 있다.
- 치료제로서는 크로로킨, 키니네, 설파도신과 피리메타민의 혼합제인 판시타등이 있다.
- 진단은 컷밥 또는 손가락에서 몇방울의 피를 채취하여 검사하면 되므로 감염되었다고 생각될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.
- 예방약 복용은 크로로킨이 널리 사

용되는데 유행지역에 들어가면 성인은 매주 300mg씩 복용하고 유행지를 떠난뒤에도 4-6주간 복용해야 한다.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유행지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따라서 취침시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치고 자도록 습관화 해야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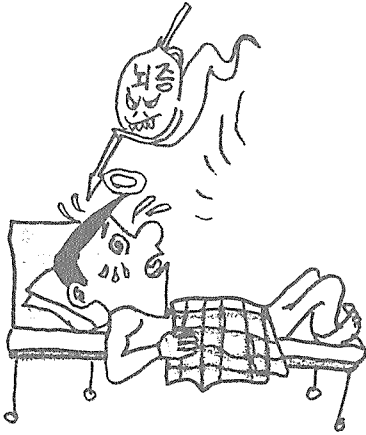
사상충증

- 사상충의 종류는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어 임파관, 임파선에 기생하는 반크롭트 사상충 및 말레이사상충과 검정파리에 감염되어 피하조직 또는 결막에서 발견되는 회선사상충과 로

아사상충이 있다.

반크롭트 사상충은 열대, 아열대 특히 서인도, 남미제국, 지중해연안, 아프리카, 동남아등에 분포하며 말레이사상충은 말레이지아, 타이, 인도네시아, 인도등에 분포하고 있다.

- 초기증세에는 오한을 동반한 발열이 생기며 이 시기에는 유충이 야간 혈액중에 나타난다.



- 질병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동 기간증, 노가 우유빛(유미노)으로 나온다.
- 치료제는 디에틸 카바마진등이 있다.
- 유행지에서는 검정(혹)파리 및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재귀열

- 이가 전파하는 것은 아시아지역(중국, 인도등)과 진드기가 전파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이 추가되며 중남미 일부에서 발생된다.
- 1-2일간 지속되는 발열이 몇일 간격으로 반복 하는 특징이 있어서 병명자재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.



- 증세로는 다리의 근육통 또는 두통이나 구토등이 오며 병원체는 스피로헤타의 일종으로 혈중에 나타난다.
- 예방으로는 유행지에서 사람몸에 있는 이나 문틈새 혹은 흠속에 서식한 진드기에 주의해야하며 항생물질중에 크로람페니콜, 테트라사이클린등의 특효약이 있다.

황 열

- 남아메리카, 아프리카에 있는 질병으로 모기가 전파한다.
- 3-10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심한 두통을 동반하며 발병한다. 근육통이나 오한, 심한 구토가 오며 구토물은 위내출혈때문에 때때로 거므스레한 색을 띄게된다. 간장에 침범하게 되면 황달증세를 일으키며 중증자는 죽는 경우도 적지않다.
- 예방은 유행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예방접종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.